

로난의 멀티골에 극장골... 결국은 연변팀이 웃었다

‘2분 존재감’ 손군의 전술적 레드카드 있었지만 10명 연변팀 3대2 역전드라마



로난이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로

로난의 멀티골이자 연변팀의 극장골이 동시에 나왔다! 칼을 간 연변룡정팀이 흑룡강빙성팀을 누르고 시원한 홈승을 낳았다.

5월 4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수적 열세로 싸운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흑룡강빙성팀(이하 ‘흑룡강팀’)을 3대2로 꺾는 기염을 토하며 홈승을 거머쥐었다.

연변팀은 이날 역시 지난 대 료녕철인팀 경기와 같은 4-1-4-1 전형으로 시작했다. 최전방의 로난을 원톱으로 리세빈, 리강, 이보, 왕박호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선 천창걸이 중원을 구성하고 한광휘, 서계조, 왕봉, 김태연이 수비라인을 지켰다. 키퍼 장갑은 동가림 대신 리아남이 착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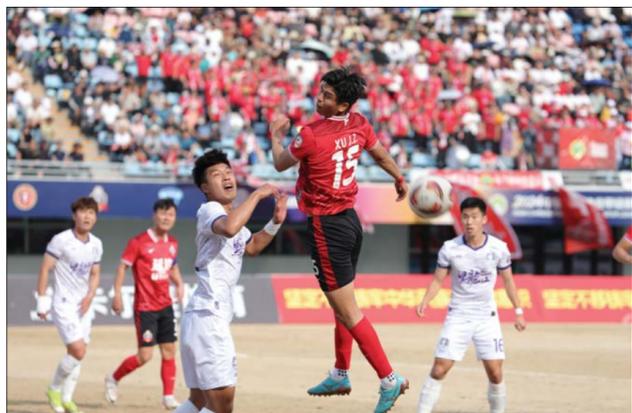
키퍼 변동과 지난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던 김태연이 이날 선발로 이름을 올리며 허문광을 대체한 외에 지난 경기와 똑같은 인력 구성으로 선발 라인업이 이뤄졌다. 한편 흑룡강팀도 4-1-4-1 전형을 들고나왔다.

시작 휘슬과 함께 연변팀은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흑룡강팀도 맞불을 놓으며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치열했다. 경기 시작 5분도 안되어 두 팀은 상호 아찔한 공격 포인트를 주고받으며 불꽃 튀는 접전을 펼쳤다.

그러나 왕박호의 헤딩슛에 이보의 먼거리슛이 연달아 선보여지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가 싶던 연변팀은 10

분도 안되어 되려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상대팀 키퍼가 길게 차올린 공이 중앙 라인을 훌쩍 넘으며 연변팀 금지구역 근방까지 날아왔고 미처 쳐내지 못한 공이 문전까지 패스로 연결될 줄이야. 1차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던지라 운으로 위기를 모면하나 싶었던 찰나에 문전으로 쇄도하던 상대팀 선수의 헤딩슛이 나왔다. 추가 슈트까지는 막아내지 못하며 연변팀은 선제골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에 한풀 내준 연변팀은 공격의 고삐를 조였다. 흑룡강팀 문전에서 아슬아슬한 공격 포인트를 연속 쌓아올리더니 10분 만에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본인 시즌 2호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일조한 서계조

오른쪽 측면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 이보가 똑같은 크로스를 문전으로 올려주었고 상대 수비수들 속에 침투해있던 로난이 몸을 낮춘 채 머리를 살짝 돌려 공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흑룡강팀 키퍼도 두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이 로난의 헤딩골은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1대1 동점 상황으로 돌아오며 사기가 오른 연변팀은 재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 이후 연변팀은 중앙에서 이보를 주축으로 랑쪽 측면을 살려 전진 패스를 시도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추가 시간 2분까지 더 이상의 득점은 없었고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되었다.

연변팀은 전력 교체 없이 후반전을

시작했다. 48분경 로난이 문전에서 사선으로 찰려준 패스를 리세빈이 받아 슈팅을 때렸고 골대 윗쪽 공간을 향하던 공을 상대팀 키퍼가 선방으로 쳐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연속적인 코너킥을 이어가며 연변팀은 부지런히 흑룡강팀 문전을 두드렸다.

직접적인 찬스 없이 잔잔하던 후반 60분에 연변팀은 두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며 분위기가 반전을 꾀했다. 왕성패가 왕박호를, 리호걸이 천창걸을 교체해 투입되었다.

이번에도 교체 카드가 효력을 발휘했다. 서계조의 시즌 2호골이 폭발했다. 이날 경기의 두번째 세트피스 득점이기도 하다. 62분경에 얻은 또 한번의 프리킥 기회에 한광휘가 문전으로 길게 올린 크로스를 서계조가 문전으로 쇄도하며 높이 뛰어오르더니 헤딩으로 완성, 역전골이 작렬했다.

그러나 득점의 기쁨을 미처 채 만끽하기도 전에 흑룡강팀은 추가골이 터진 지 2분도 안되는 64분에 반격으로 연변팀의 수비를 따돌리더니 추격골을 터뜨리며 따라붙었다.

71분경에 연변팀은 손군으로 리강을 교체하며 재차 재정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73분에 손군은 역습을 통한 상대팀의 우리 팀 키퍼와의 1대1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반칙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고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냈다. 손군은 가장 위험한 상대팀의 공격을 파괴하고 출전 2분 만에 퇴장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연변팀은 소극적으로 나서는 대신 되려 부단히 공격을 가했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한 흑룡강팀도 무섭게 맞공격을 펼쳤다.

84분경에 연변팀은 현직건으로 리세빈을, 리봉으로 한광휘를 교체하는 카드를 쓰며 승리에 대한 절실함을 보였다. 비록 수적으로 밀렸지만 연변팀은 주눅들지 않고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다.

그리고! 드디어! 추가 시간 6분에 극장골이 터졌다. 공격수 로난의 사이 다같은 멀티골이 터지며 답답하던 상황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다.

10명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연변팀은 고대하던 홈승 승전고를 울리며 축구장을 찾은 1만여명 축구팬들에게 명절 선물을 확실하게 썼다.

1승 1무, 2경기 연속 홈승전을 치른 연변팀은 5월 12일에 운남으로 원정출장을 떠나는 제10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

[특집 관전평]

연변팀이 쓴 역전드라마 ‘승리를 넘어 감동으로’



대 흑룡강빙성전에 선발 출전한 연변팀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팬들이 바라는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감동의 축구임을 제대로 보여준 경기 아니었나 싶다.

5월 4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9라운드 대 흑룡강빙성팀전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한명이 적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승부욕을 발휘했다. 73분경에 나온 손군의 전술적 반칙 퇴장으로 인해 수적으로 밀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2 무승부라도 지키려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승리에 대한 간절함으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여 기어코 결과를 바꿨다.

후반 추가 시간에 연출한 대역전극은 짜릿함을 넘어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게 축구지!’ 승리를 향한 굳은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습은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대 료녕철인팀 경기에서 연변팀은 압도적인 슈팅 24회(유효 슈팅 9회)를 기록하고도 한골에 그치는 결정력으로 아쉬움을 산 바 있었다. 되려 슈팅 4회에 유효 슈팅은 아예 0회였던 료녕철인팀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자책골을 내주는 치명적인 실수로 다 잡은 승리를 놓치며 고개를 떨궈야만 했다.

‘무던 칼날’이란 흑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공격의 칼날이 무디니 결과를 가져오기에 렉부족이었던 대 료녕철인팀전에 비해 대 흑룡강빙성팀전 기술통계를 보면 연변팀은 슈팅 9회(유효 슈팅 4회)를 크게 앞섰음은 물론, 경기를 20분이나 남겨놓고 한명이 적은 열세를 이어가야 했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데이터를 기록했다. 이는 모든 선

수들이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열심히 뛰었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칼을 갈고 나온 로난이 멀티골을 폭발하며 경기를 결정지어주었다. 경기후 소식공개회에서 김봉길 감독은 “득점이 나오지 않아 고민이었던 로난선수에게 자신감이 많이 실어주었다.”고 표했다. 확실히 이날 로난은 문전에서 예전보다 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멀티골이자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칼날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난의 멀티골을 극찬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다른 선수들도 함께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팬들이 뽑은 MVP’로 가장 화제가 된 손군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대2 상황에서 손군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극적인 역전골이 가능했을까? 경기의 향방이 걸린 변곡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 출전 2분 만에 레드카드를 받은 각으로 운명을 던져 방어한 손군에게 사람들은 되려 ‘값진 레드카드’이자 ‘승리의 주역’이라고 엄지척을 들어주었다. 손군 자신도 ‘퇴장이 나올 줄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겨서 다행’이라고 승리에 대한 절실함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집중력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최고의 경기라는 극찬을 들어 마땅한 경기였다. 문전 연변팀이 선사한 ‘승리를 넘어 감동’, 이런 모습에 팬들은 환호한다. 그리하여 다음 경기(5월 12일)에서 딱딱하게 되는 현 리그 1위 운남옥곤팀과의 제10라운드 대결이 무척 기대가 된다.

포기하지 않는 연변팀의 활약이 기다려진다.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김봉길 감독 “불굴의 투지로 싸운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5월 4일 오후 3시,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9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인원상 한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로난의 극장골로 흑룡강빙성팀을 3대2로 꺾고 두번째 홈승을 거두었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김봉길 감독은 “선제 실점에 경기중 선수의 퇴장까지 나왔지만 선수들이 불굴의 투지로 싸워 승리한 것 같다.”고 경기를

평하고 나서 “열혈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힘을 낸 선수들에게 모든 찬사를 보내고 싶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로난의 멀티골과 후반전 전술 변화에 대해 김봉길 감독은 “지난 몇경기에서 로난선수가 득점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는 데 대해 자신감을 많이 실어주었다.”고 설명하면서 “한명이 부족했지만 홈경기인 만큼 꼭 승리하고 싶었기에 수비 대신 공격적으

로 나간 것이 중요했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흑룡강빙성팀 왕하룡 감독 역시 “연변팀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운을 뗐 후 “우리 팀이 정신상태가 제고되었지만 전술적으로나 공격적인 면에서 연변팀이 우리보다 한수 우위였다.”고 연변팀의 결과에 축하를 보냈다.

한편, 이번 경기의 최우수선수로 연변룡정팀의 로난이 뽑혔다. /김파기자

‘벼랑 끝’ 장춘아태, 원정서 3대2 승리

모처럼 두꼴을 몰아넣은 간판공격수 담룡의 활약으로 장춘아태팀이 원정에서 남통지운팀을 꺾고 잠시 슈퍼리그 최하위를 벗어났다.

5월 5일, 중국 슈퍼리그 제10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남통팀이 홈에서 장춘팀과 비속 혈투를 펼쳤다.

전반 7분경, 장춘팀 용병 세트지뉴의 리그 1호골로 이른 시간부터 앞서 나가며 분위기가 좋았지만 41분경, 남통팀 조강에게 헤딩 동점골을 허용하며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되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남통팀은 선수 교체를 통해 변화를 주었으나 추가골은 장춘팀이 기록했다. 후반 60분경, 장춘팀 용병 조이의 완벽한 패스를 받고 곧바로 골키퍼와 맞닥뜨린 담룡은 침착하게 공을 잡아 가볍게 골문 구석으로 차넣었다. 이어진

세번째 골도 역시 담룡이 해결했다. 72분경, 상대 수비수가 헤딩으로 견어낸 공이 담룡의 어깨에 맞고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며 ‘행운골’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담룡은 이날 실력에 운까지 따랐다. 경기 종료 직전 용병 고티네스가 남통팀을 위해 한골을 만회했다.

결국 장춘팀은 3대2로 사취 감독부임 이후 첫 승을 거두었다. 7경기 만에 드디어 무승의 늪에서 벗어나 귀중한 3점을 얻은 것이다. 이날 장춘팀은 풀출전만 아니라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점차 회복되고 5명의 용병들도 모두 복귀했다. 길레르메의 몸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오는 5월 10일, 장춘팀은 원정에서 상해해항팀과 제11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오건기자

2024 ‘홍석류’컵 전국 100개 팀 축구초청경기 룽정서 개최

5월 2일, 2024 ‘홍석류’컵 전국 100개 팀 청소년축구초청경기가 룽정해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경기는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운동관리중심과 주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주청소년축구연맹에서 주관했으며 룽정해관강축구

문화타운에서 협조, 서울우유 길림성총대리에서 후원했다.

내몽골자치구, 흑룡강성, 장춘시, 치치할시, 대련시, 연길시, 화룡시, 도문시, 훈춘시, 룽정시 등 지역에서 온 30여개 청소년축구클럽 85개 팀의 총 1,000여명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한 가운데 갑조, 을조, 병

조 등 3개조는 8인조 경기를, 정조는 5인조 경기를 5월 4일까지 이어갔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초청경기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축구의 고향’ 문화 시즌 활동에 적극 호응하고 연변의 농후한 축구문화를 깊이 발굴하며 연변의 ‘축구의 고향’ 명

함을 힘써 구축함과 더불어 청소년축구의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여 연변축구사업의 번영과 발전에 힘을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현관기자